

도쿄 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서 주목받은 K-푸드!, 일본 바이어 사로잡다!

- 통합한국관 73개 기업·단체 참가, 수출 상담 1,333건(99백만불, 전년 대비 11% 증가), 업무협약 23건(12백만불, 전년 대비 9% 증가)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도쿄 식품박람회(FOODEX JAPAN, 이하 푸덱스)’에 참가하여 총 1,333건, 99백만불(전년 대비 11% 증가)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23건, 12백만불(전년 대비 9% 증가)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1회째를 맞은 ‘푸덱스(FOODEX)’는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3,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7만명 이상의 식품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로 K-푸드 수출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 푸덱스에서는 최근 일본 내 외식비 상승, 1인 가구 증가,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냉동·간편·건강식품 등이 많이 소개되었으며,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박람회 트렌드에 맞춰 K-푸드 수출기업, 충청북도·전라북도 등 5개 지방정부, 파프리카·토마토·감귤 등 4개 수출통합조직으로 구성된 통합한국관을 운영하였다.

특히, 냉동식품을 주제로 ‘K-Frozen’ 테마관을 별도 구성하여 전시와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對일본 수출 전략품목 홍보를 위한 ‘넥스트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프리미엄 과일인 파프리카·키위·감귤, ▲간편하게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동결 건조 국 블록, 감자 핫도그, 고구마빵, ▲건강음료, 단백질 제품 등 기능성식품 등이 한국관을 찾은 바이어들에게 인기를 끌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람회에 참가한 음료류 수출기업 관계자는 “건강을 중시하는 일본 트렌드에 따라 기능성 음료에 대한 현지 바이어들의 문의가 이어져 제품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단백질 제품 수출기업 관계자는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바가 인기였고,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관을 방문한 일본 유통업체 ‘베이시아’의 담당자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한국식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으며, 한국식품의 포장과 맛의 품질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냉동만두 외에도 아이스크림, 빵 등의 냉동식품 유통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일본은 K-푸드 수출 3대 전략 국가 중 하나로 전체 수출액의 13%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정부는 2026년 일본 수출 전략품목으로 신선농산물, 우리술, 간편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이번 푸덱스 박람회 참가 성과를 바탕으로 상품개발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6 도쿄 식품박람회(FOODEX JAPAN) 관련 사진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농식품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김남주	(044-201-2174)



통합한국관 전경



시식행사



K-푸드 냉동식품관



넥스트 K-푸드 홍보관



통합한국관 부스



통합한국관 부스